

역학				번호: J - B - 3	
제 목	국문	한국과 미국의 담배소비량 및 폐암사망률 비교			
	영문	Comparison of the lung cancer mortality and tobacco consumption in Korea and U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윤지은 ¹⁾ , 원소영 ¹⁾ , 김수정 ²⁾ , 지선하 ¹⁾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문	Ji Eun Yun, So young Won, Soo jeong Kim 1)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gement, Yonsei University, Seoul,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Seoul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 연구배경</p> <p>1950년 영국의 Doll과 Hill 그리고 미국의 Wynder와 Graham의 환자 대조군 연구로부터 흡연은 폐암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1994년 Doll과 Peto는 폐암에 대한 흡연자의 비교위험도를 14배로 보고하였으며, 1998년 발간된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에서 흡연자의 비교위험도는 13배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와 일본 및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여러 역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폐암발생에 대한 흡연의 비교위험도는 4-5정도로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담배소비량과 폐암사망률을 시계열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인의 폐암사망위험도가 미국인의 그것에 비해 낮은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이 연구는 과거 문헌이나 이차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국인의 담배소비량과 폐암사망률은 NCI에서 발행한 Monograph number 8 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1910부터 매 5년마다 담배소비량과 1950년부터 매 5년마다 폐암사망률을 이용하였다. 한국인의 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연보를 통해 1980년 이후 매 5년마다 사망률을 산출하였고, 1945년 이후의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인의 담배소비량자료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자료의 비교는 폐암사망률과 25년 전의 18세 이상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p> <p>3. 연구결과</p> <p>가. 담배소비량</p> <p>미국의 경우 18세 이상 인구 1인당 담배소량은 1920년에 700 개피에서 1965년에 4200 개피로 증가하였다가 1995년에 2600개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1945년에 18세이상 인구 1인당 1450개피를 피웠으며, 1990년에 3230개피까지 증가하였고, 2000년에 3060개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 <p>나. 폐암사망률</p> <p>미국의 경우 백인 남자 10만명당 폐암사망률은 1950년에 10만 명당 22명에서 1990년에 73명으로</p>					

증가하였다. 흑인 남자의 경우는 10만 명당 폐암사망률이 1950년에 18명에서 1990년에 108명 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한국 남자의 경우 1980년에 3.2명, 1990년에 17.4명, 2000년에 33.2명으로 증가 하였다.

다. 담배소비량과 폐암사망률과의 관계

미국의 경우 10만 명당 폐암사망률이 1955년에 30 이었고, 25년 전인 1925년의 담배소비량은 1000 개피이었다. 이는 10만 명당 폐암사망 1명에 대해 연 50개피의 담배를 소비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비슷한 크기의 폐암사망률을 비교하면, 1995년에 폐암 사망율이 28.2이었고, 25년 전인 1970년의 담배소비량 2,745 개피이었다. 이는 10만 명당 폐암사망 1명에 대해 연 97.3개피의 담배를 소비한 것이다. 즉, 비슷한 크기의 폐암사망률을 내는데 한국인의 단위당 담배소비량은 미국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4. 고찰

그 동안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흡연이 폐암에 주는 위험도가 서양인에 비해 낮다는 학설이 자주 보고되어 왔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폐암사망에 대한 25년전 담배소비량을 미국의 것과 비교한 결과 같은 수준의 폐암사망률로 비교하면 한국인에서 담배소비량이 미국인의 담배소비량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담배소비량 및 폐암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담배소비량은 18세 이상 남녀 인구를 합한 수를 이용하였으나, 폐암사망률은 남, 여를 구분하여 비교한 것도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인의 폐암사망률의 위험도는 미국의 그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음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상호 평가할 수 있는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